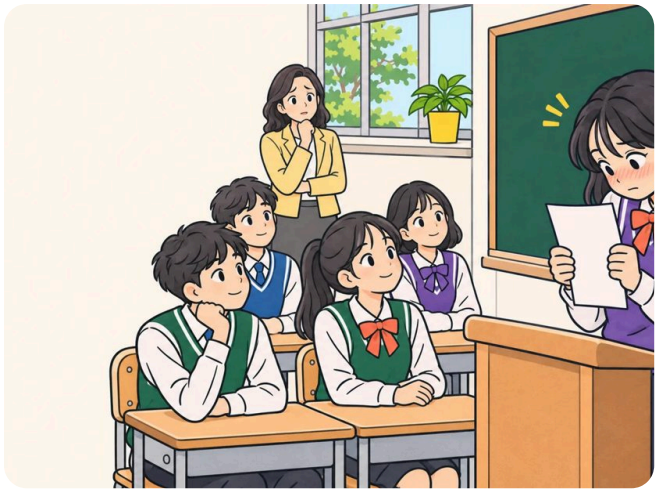


이야기 카드 1

하얘진 영어 말하기

나연이는 영어 말하기 평가 첫 문장에서 머리가 하얘졌다. 일주일 동안 영어 시간마다 고개를 숙였다. 그러다 짝이 "점심시간에 같이 연습할래?"라고 물었고, 나연이는 하루 한 문장씩 소리 내 읽기 시작했다.



이야기 카드 2

명단에 없는 내 이름

우진이는 축구부 주전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걸 보고 그날 연습을 빠졌다. 며칠 뒤 코치 선생님이 "패스가 좋아졌다"고 말해 주었다. 우진이는 '아직 안 된 것'과 '좋아진 것'을 노트에 나눠 적어 보았다.



이야기 카드 3

혼자 먹던 점심

전학 온 가온이는 첫 달 내내 점심을 혼자 먹었다. 집에 와서 엄마에게 털어놓은 날, 엄마는 "좋아하는 걸 하는 곳에 가 보면 어때?"라고 했다. 가온이는 용기를 내 보드게임 동아리 문을 두드렸다.